

## 이주의 본당 소식

\*본당의 새로운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사 시작 30분 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주는 성체 강복 및 조배, 2-4주는 묵주의 기도를 올리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주 : 레지오단, 3주 : 전례부, 4주 : 기도회, 5주 : 구역부

### ● 추석 위령 미사

9월 23일(일) 추석 합동 제사 및 위령 미사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윤모니카 회장님이나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추석 잔치 안내

9월 23일 미사 후 추석 잔치가 있습니다. 추석 잔치에 노래 및 장기자랑 대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출전을 원하시는 분은 곡명과 함께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 성모님 꽃 봉헌

St. Mary 성당에서 성모님 꽃 봉헌을 요청 받았습니다. 성모님께 꽃 봉헌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요가반 가을학기 수강 신청

일시 : 9월 10일(월) - 12월 10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 성당홀(친교실)      수강료 : \$30(3개월)

준비물 : 요가 매트, 간편한 운동복 차림

접수 : 문혜숙 베로니카

### ● 성가책 판매

수정 보완판 새 가톨릭 성가책을 판매합니다. 구입은 김재숙 제노베파 총무님께 문의 바랍니다.

\* 가톨릭 성가 대 \$30,      가톨릭 성가 중 \$25

### ●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치유와 용기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하면서 양승숙 마리아, 고정림 세실리아, 방영애 레나타, 옥달영 안드레아, 박영목 다니엘, 김영순 스텔라, 최영숙 에스터, 김 레지나 그리고 장식영 요한 형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두함께! 구역 소식

\*구역 여러분 모두의 참여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

\*환영, 환송, 축하등 모든 신자들의 소식 나눔터입니다!

### ● 남부 뉴저지 통합 한국학교 개강

일시 : 9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TKCS 5 Carnegie Plaza  
Cherry Hill, NJ 08003

문의 : 이유정 교무(856-433-0573)

### ● 전시회(The Half)

권명자 율리안나 자매님의 미술 전시회가 9월 1일(토)부터 29일(토)까지 체리힐 도서관 아트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 알립니다!

\* 꽃봉헌과 미사봉헌은 이수영 에우프라시아 자매님(484-995-9638)

\* 친교명단을 친교실에 공지하였습니다.

\* 이번달 상품권판매는 **로스리아 구역** 입니다.

이번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글로리아 구역** 입니다.

다음달 친교실 청소담당은 **로스리아 구역** 입니다.

(친교실 청소는 매달마다 돌아가면서 담당합니다)

# St. Yi Yun Il John Korean Catholic Church 체리힐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김도윤 프란치스코  
평협회장: 윤모니카



2001 Springdale Rd, Cherry Hill, NJ 08003 (ST. MARY내 위치)

856-912-1355

chkcc.org

### 미사안내

주일 : 오후 5시

평일(목요일) : 오후 12시

치유미사(Healing Mass) :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성사안내

고백 성사 : 미사 30분 전

혼인 성사 : 3개월 전 신청

병사 성사 : 위급할 시 언제든지

유아 세례 : 1개월 전 신청

### \* 단체모임 안내

열린 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예비자 교리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여성 레지오(평화의 모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평협회 : 수시 모임, 수시 공지

# 오늘의 미사 전례

\*미사시작 20분 전에 기도와 성사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당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제1독서	신명기 4, 1-2. 6-8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야고보서 1, 17-18. 21-22. 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복음	† 마르코 7, 1-8. 14-15. 21-23
봉헌성가	431번 찬미의 송가
성체성가	172번 그리스도의 영혼
퇴장성가	401번 주를 찬미하여라



주 - 님 달 - 신 의 천막 에 누가 머 물 리 이 까?

## 이주의 미사전례 봉사자

주 일	연중 제22주일 9월 2일	연중 제23주일 9월 9일	연중 제24주일 9월 16일
제1독서	신선희 카타리나	하국일 암브로시오	권명자 율리안나
제2독서	김정숙 이사벨라	김재숙 제노베파	김희동 프란치스코
친교봉사			

#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를 따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부정 규정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폭탄선언을 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이 말씀은, 악은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느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는 책임을 미룹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창세 3,12). 이러한 핑계와 책임 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아닐까요? 더욱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을 피해 숨어 있었지요(창세 3,8 참조). 잘못을 저지르고는 하느님의 존재가 불편해졌기에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소외시킨 것입니다.

이후 카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한 나머지,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고 맙니다(창세 4,1-8 참조). 이처럼 하느님과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소외시키게 됩니다.

죄를 극복하고 마음을 정화하려면 제2독서 말씀처럼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2분 교리

## 복음서 4권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면에서 같지만 표현방식, 저작연대, 저자와 편집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고유한 특징에 따라 마태오 복음은 사람에, 마르코 복음은 사자에, 루카복음은 황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에 비유됩니다.

## 오늘의 미사지향

우리들의 **주일정성** < 8월 26일(일) >

봉헌금	\$589.00	
교무금	\$180.00	윤모니카(7-9)
<b>Total</b>	<b>\$769.00</b>	